

북한의 외국어로서의 조선어 교재 비교 연구*

- 김일성종합대학교와 김형직사범대학교의 초급 회화 교재를 중심으로 -

강 남 옥**

< 次 例 >

- I. 서론
- II. 분석 대상 교재의 사용 환경 분석
- III. 분석 대상 교재의 비교 분석 및 평가
- IV. 결론

I.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대상

본 연구는 북한의 주요 2개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조선어교육¹⁾을 위해 제작된 초급 수준의 교재를 상호 비교하여 각 교재의 특성을 분석하고 교재론적으로 유효한 시사점을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이 논문은 2011년도 호서대학교의 재원으로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2011-0082).

** 호서대학교 인문대학 한국어문화학부 조교수

1) 본고에서 사용하는 ‘(외국어로서의) 조선어교육’이라는 용어는 장기적으로는 학계의 합의가 요구되는 것으로, 용어 약정(約定)의 배경에 대한 해설이 필요하다. 이에 개념의 설정 및 용어의 선택과 관련된 내용을 아래 2. 절에서 별도로 다루었다.

그간의 북한 교재 분석이 대개 ‘국어학’, ‘한국어교육학’이라는 대전제하에서 이루어진 남북한 간 비교 분석에 주안(主眼)을 두어 온 것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목표 학습자, 교재 제작 목적이 거의 동일한 북한 내 두 교재를 선정하여 ‘당사자적 관점(personal point of view)’에서 분석과 평가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논의를 설계한 소이(所以)는 그간의 북한의 한국어 교재 연구가 ‘남북한 교재 사이의 이질성’, ‘북한 내 모든 교재 사이의 획일성’이라는 선입견에서 출발하여 최신 외국어교육학의 교수-학습론과 풍부한 외적 지원(인쇄, 삽화, 보조자료 등)이 반영된 남한 교재와 달리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는 당위적인 결론에 이르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의 조선어교육 교재가 전제적(專制的)인 풍토 아래 모든 면에서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다양한 교재를 한 번에 뚫고그려 논의를 진행한 것이 더러 있어 실상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다양한 경로로 입수한 자료들을 검토해 본 결과²⁾, 외국인들의 조선어교육과 연수를 담당하는 주요 대학에서는 프로그램의 규격과 틀에 대해서는 합의와 일치 추구를 하는 한편, 교수-학습의 접근 방법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체로서 교재 제작에 있어 나름의 관점을 가지고 각자의 기관에서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외국어교육 철학에 입각하여 차별화된 교재를 제작하고, 또 이를 개선하여 첨가·삭제·수정하면서 증보(增補)와 개정(改訂)을 꾸준히 지속하고 있음을

2) 연구 대상 이외 입수한 북한의 조선어교육 교재는 구·신판본 등 동종(同種) 자료나 과본을 포함하여 약 15종 내외로, 통일부 북한자료센터(<http://library.unikorea.go.kr>)에도 소장·수록되지 않은 자료들이다. 참고로 북한자료센터에 소장된 자료들은 대부분 평양외국문도서관출판사에서 나온 러시아어권 및 영어권 국외 독학자(獨學者)를 위한 교재로, 체류 유학생 및 연수생을 위한 교재인 입수 자료들과 성격이 다르고 그 편제(編制)도 완전히 다르다. 입수하기 어려운 희귀한 자료들을 흔쾌히 제공해 주시고, 관련 자료의 수집을 위해 많은 도움과 조언을 주신 익명의 학습자, 연구자에게 지면을 빌려 깊은 사의(謝意)를 표한다.

발견할 수 있었다. 그렇기에 기존의 연구 관점과는 다른 차원에서 북한의 조선어교재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본고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은 교재와 범위는 김일성종합대학교 출판부에서 1999년 발간한 박재호 著, 『조선말회화(1) [류학생용]』 중 1~2편 부분과 김형직사범대학교 출판부에서 2005년에 발간한 장광길 著, 『조선어 기초회화 [류학생용]』 전체 영역이다. 두 교재의 해당 범위를 선정하게 된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에서 다시 다루거니와, 우선적으로 그 이유를 들자면 ① 머리말에서 밝힌 두 교재의 발간 목적이 동일하고, ② 양 대학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조선어 연수의 주요 기관³⁾으로서 오랜 시간 교육·운영해 온 경력을 지니고 있으며, ③ 두 종의 교재 기본적으로 모두 같은 목적으로 개설된 프로그램에 사용된 것으로서, 김형직사범대학교의 『조선어기초회화』의 초판이 김일성종합대학교의 교재와 같은 해인 1999년에 발간되었다가 2005년 여러 권으로 분책(分冊)되면서 증보판으로 발행된 사실까지를 더하면 시기상으로도 일치도가 높은 교재이기 때문이다. 학습 분량이나 소요 수업 시간, 예상 학습자, 교재가 설정한 목표 전반이 대부분 동일하나, 교재의 구성이나 편제는 상당히 다른데, 본고는 바로 이 점에 주목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와 주요 개념 설정

북한 학계의 국어 연구, 북한의 언어정책, 남북한 문법이나 어법에 대한 비교, 또는 내국인을 위한 북한의 국어교육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상당

3) 강남옥(2011: 304-306) 참고. 해당 논문에서는 북한에서 조선어 연수를 받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여, 중국 정부 선발 어학 연수생(공식명칭: 朝鮮 交換 獎學生)을 비롯하여 공식적인 조선어교육 프로그램이 김일성종합대와 김형직사범대의 조선어문학을 전공한 교원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 양의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북한의 외국인인을 위한 조선어교육과 교재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그 수를 꼽을 수 있을 정도로 많지 않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자료의 부족이라든지, 비교적 신생 학문이라 할 수 있는 한국어교육학 자체가 이 영역을 깊이 있게 둘러볼 만한 여건이 조성되지 못한 연유도 있을 터이나, 북한의 ‘외국인인을 위한 조선어교육과 교재’라는 주제를 어떻게 학술적으로 설정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깊이 있게 나아가지 못한 것을 지적해 둘 수 있을 듯하다. 북한에서 이루어지는 조선어교육은 ‘교육’이라는 사태(事態)에 수렴하고, 북한에서 출판된 조선어교육 교재는 ‘국어학 자료’라는 현상에 맞닿는다. 교육학적으로도 국어학적으로도 이는 연구 대상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다양한 접근으로 해석될 수 있는 특성을 지닌다. 그러나 그 자체로는 양자의 학문에서 다루는 주요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온전히 해석되지 못하고 지엽적인 부분에서만 접근이 이루어졌다.

한편으로 ‘북한’이라는 국제정치외교학적 주제로도 또 다른 담론이 형성될 수 있다. 한 선행 연구 중에서 지적한 것처럼(강남옥, 2011: 296), 남한과 북한은 ‘국외 자국어 보급’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영향력이나 지원 수준은 남한에 전혀 비할 바가 못 되지만 동시에 독특한 위상을 차지한다. 중국이나 특정 제3세계 국가 출신의 외국인이 북한에 체류하면서 받는 조선어교육 연수는 단순한 외국어교육의 측면을 넘는 정치외교학적인 함의(含意)가 있기 때문이다. 교육 내용 안에 담겨 있는 체제 선전과 우월성 강조, 역사관이나 사회관의 투영 역시 그러한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북한의 조선어교육과 교재는 열려 있는 대상으로 다양한 접근과 해석을 허용한다. 그런 한편으로 그러한 다양한 접근을 폭넓게 고려하면서 한국어교육학과 한국어교재론의 내재적인 학문 체계 속에서 가치를 규명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북한의 조선어교육을 고찰한 연구

들은 얼마 되지 않으나 이러한 요구에 답하기 위한 의미 있는 성과를 누적시켜 왔으며, 기존의 선행 연구가 이루어 놓은 결과에 힘입어 이 연구의 구체성이 확보된다고 할 수 있겠다.

본고의 주제와 관련하여 연구 시발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김중섭·조현용(1996, 1998), 金重燮(2000)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북한의 한국어교육’, 또는 ‘북한의 언어정책’이라는 대주제를 제목으로 삼고는 있으나 연구의 본령은 북한의 조선어교육 교재 일부를 중심으로 그 구성 및 내용, 어휘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에서 외국어로서의 조선어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추론하거나 남한의 한국어교육과 비교하는 데 있다. 한국어교육학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인 이른 시기에 직접 입수한 자료를 통해 북한의 조선어교육을 알리고 연구 주제로 삼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의의가 있고, 향후 연구의 출발점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여기에서 제시한 주요 자료들의 서지 사항이 불분명한 것이 보이고, 조선어교육 교재를 대주제를 논의하기 위한 소재로만 한정지어 다루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준다.

이관식(2005), 李官植(2007)의 연구는 북한의 조선어교육 교재에 보다 집중하여 교재 면면을 분석하고 소개하는 것으로서 한국어교재론의 측면에서 연구사적 가치가 있다. 특히 이관식(2005)은 김형직사범대학교의 ‘조선어회화’와 ‘조선어회화2’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진행한 것으로 본 연구의 직접적인 선행 연구라 할 수 있는데, 교재 외적인 측면에서부터 내용 전반에 이르기까지 분석 기준을 제시하고 여기에 맞는 해석을 덧붙이고 있다. 다만 이 교재들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분석은 충분히 살피지 못하고 있어 향후 연구의 여지를 남겨 놓았다고 하겠다. 이어 李官植(2007)에서는 북한의 외국인 대상 문화(민속·풍습) 교재를 소개하여 2005년의 회화 교재 분석 연구에 이은 일련의 작업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이후 한동안 북한의 조선어교육 및 교재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

고 있지 못하다가 최근 김인규(2011, 2012ㄱ, 2012ㄴ), 강남옥(2011)에서 다시 활기를 띠고 진행되고 있다. 김인규(2011, 2012ㄱ)은 전자의 학술 발표문을 후자의 연구 논문으로 다듬은 것으로, 본고에서 다루게 될 김일성종합대학의 『조선말회화(1)』을 분석의 한 축으로 상세히 다루고 있어 큰 참조가 된다. 이 연구에서는 거시적 분석의 틀로 단원의 분량을, 미시적 분석의 틀로 대화문·어휘·문법의 특성을 기준으로 삼아 분석을 진행하였다. 덧붙여 김일성종합대학의 조선어 연수 프로그램에 실제 다녀 온 3명의 수료자로부터 면담을 통해 추가로 정보를 수합하여 교재 사용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한 기관에서 1학기와 2학기에 사용하는 회화 교재를 일관되게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구체적이고 학습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한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연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도 밝힌바 분석을 시도한 대상의 구성이나 형태가 너무 상이(相異)하여 논평 차원의 기술은 가능하나 세밀한 시사점을 얻기에는 난점이 있었다. 후속 연구인 김인규(2012ㄴ)은 강독 교재를 중심으로 문화 요소를 다루는 학술 발표문으로서 교재의 내용을 학계에 소개하고 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강남옥(2011)은 이외 연구가 주로 집중해 온 교재 분석 연구가 아닌 학습자를 중심으로 면담 조사를 진행한 질적 연구로 연구의 영역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교재라는 가시적 증거가 있다고는 해도 그 교재가 어떤 학급에서 어떤 교사가 어떻게 교수-학습하였고, 어떤 과외(課外) 활동이 제공되었는지는 북한의 폐쇄적인 사회 특성상 알아내기 어렵다. 그러한 점에 착안하여 이 연구는 북한 김형직사범대학교의 연수 과정에 참여한 두 명의 제보자를 섭외하고 심층 면담을 진행하여 교육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사실에 대해 실질적인 정보를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교육 사태의 중심이 되는 교재, 교사, 학습자가 형성하는 관계나 과정 운영 전반에 대한 밑그림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유익하나, 제보자가 연수를 받은 시기가 2002년으로서 이미 10년을

넘어 근래의 과정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알 수 없다는 점에서는 미진한 점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선행 연구를 일별(一瞥)하면서 사용되고 있는 개념과 용어에 있어 확인해 두어야 할 것이 있음을 보게 된다. 본고에서는 서론에서부터 북한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인 대상의 자국어 교육과 보급을 ‘북한의 조선어교육’으로 일컫고 있는데, 이는 선행 연구 중 강남옥(2011)의 견해를 수용하기 때문이다. 해당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다.

(前略) 남한의 ‘한국어’이든 북한의 ‘조선어’이든 한반도에서 쓰이는 한민족의 언어라는 점에서 ‘한국어’로 통칭하고 외국어로서 교수·학습되는 외국어 교육의 영역도 ‘한국어교육’으로 지칭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의 ‘한국어교육’이라는 용어는 광의의 의미로는 남북한을 아우른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이자, 협의로는 남한의 한국어교육을 지칭하는 데 동시에 사용될 것이다. 양자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남한의 한국어교육’, ‘북한의 조선어교육’을 구별하여 사용한다. (강남옥, 2011: 296 수정 인용)

연구사를 살펴보면, 김중섭·조현용(1996, 1998)과 이관식(2005), 李官植(2007)에서는 ‘북한의 한국어교육’이라는 용어를, 金重燮(2000)에서는 위 인용문이 지정한 광의의 의미로 ‘남북한의 한국어교육’이라는 용어를 썼으며, 김인규(2011, 2012^ㄱ, 2012^ㄴ)에서는 ‘조선의 조선어교육’을, 강남옥(2011)에서는 ‘북한의 조선어교육’이라는 용어를 택하고 있다. 이 용어 안에도 상당히 많은 관점이 내재하고 있다 하겠는데, 앞선 연구들에서는 남한 중심의 비교 관점이 강한 반면, 김인규(2012^ㄱ: 287, 2012^ㄴ: 167)에서는 국제적으로 부여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이라는 북한의 독자적인 정체(政體)를 인정하는 것이 연구의 중립성이나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의미가 있다는 관점을 취한다. 아직 학계에서 합의가 되지 않은 사항이므로 추후 꾸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개별 연구에 따라

약정하되, 본고에서는 ‘한반도와 그 주변을 터전으로 하여 발생하고 세계 각지의 이주민에 의해 전승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동일하게 인지되는 이상적으로 상정되는 한민족의 언어’를 ‘한국어’로 정의하고 남한의 연구 자적 입장에서 북한의 대외 자국어 보급을 ‘북한의 조선어교육’으로 지칭하는 절충적인 입장을 취하기로 한다.⁴⁾

또한, 남한과 북한의 한국어교육의 영역과 구획(區劃)에도 일부 차이가 있어 부가적으로 언급할 필요가 있다. 남한의 한국어교육에서는 언어 기능(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과 문법, 문화 등을 그 요소로 다루고 있지만 북한의 조선어교육에서는 기본적으로 구어(口語)와 문어(文語)를 외국어 교육의 기본 요소로 보고, 말하기와 듣기를 포함한 시청각 교육을 총칭하여 ‘회화(會話)’로, 읽기를 위주로 제한적인 쓰기를 아울러 진행하는 교과를 ‘강독(講讀)’으로 다루며, 이를 외국어교육의 요체(要諦)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문법’, ‘글쓰기’, ‘민속(문화)’, ‘역사’ 등은 외국어를 배우는데 필요한 부가적인, 혹은 선택적인 교과로 취급한다. 그렇기 때문에 입수한 다수의 북한 교재에서는 영상물 시나리오, 극문학 작품 등의 교육 제재가 모두 회화 교재편에 일부로서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용어상 혼란이 올 수도 있는데, 이러한 점을 감안해야 북한의 조선어교육 교재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II. 분석 대상 교재의 사용 환경 분석

4) 덧붙여, 영문 초록에서 언급하는 김일성종합대학교와 김형직사범대학교에 나타난 인명은 중립적인 차원에서 남한의 국립국어원, 북한의 사회과학원의 로마자 표기법과는 다르지만 표기 방식 제정의 근간이 된 ‘McCune - Reischauer Romanization’에 따라 표기함을 밝힌다. 따라서 ‘김일성’은 ‘Kim Il-sung’으로, ‘김형직’은 ‘Kim Hyöng-jik’으로 표기한다.

1. 연수 기관으로서 양 대학의 역할과 위상

현재 북한에 주재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추산하기는 쉽지 않다. 일시적 방문자나 관광객 이외 외교관 공관 주재원, 기업 주재원, 유학생 등 일정 기간 이상 상주하는 외국인의 수를 비롯한 관련 자료를 폐쇄적인 북한 사회의 특성상 확보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통계청 북한 통계 서비스(<http://kosis.kr/bukhan>)나 국가지식포털 북한지역 정보넷(<http://www.cybernk.net>), 통일연구원(<http://www.kinu.or.kr>) 등에 공개된 자료를 통해 대략의 추론은 가능하다. 북한은 2011년까지 전 세계 161개국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고(참고로 남한은 188개국), 대사관·(총)영사관·대표부, 국제기구 사무소 등을 포함하여 49개의 재외 공관을, 34개의 자국 내 공관을 보유하고 있다(참고로 남한은 각 155개, 118개). 또한 최근 8년간 북한에 투자한 외국 기업은 351개에 이른다(중국 205개 > 일본 15개 > 남한 10개 > 이탈리아, 영국 각 7개 순 등등. 미국 국가정보국(DNI) 'Open Source Center' 인용, 연합통신 2012. 7. 12 보도). 주요 교류국은 중국에 크게 치우치고 있지만 이외 중동 및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러시아 및 동유럽 일부 국가와 군사 기술을 포함한 과학기술 교류 및 교육·학술·문화 교류를 지속하고 있어 소수이기는 해도 체류 유학생도 꾸준히 주재 외국인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북한의 대외 교류와 무역이 활발한 것은 아니지만 평양에는 외교관과 국외 주재원 자녀를 위한 외국인학교가 있어 조선어 교과를 가르치고 있으며, 동시에 유학생을 포함한 성인 학습자들을 위해서 외국인을 위한 조선어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은 개별 대학마다 별도로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김일성종합대학교와 김형직사범대학교의 이원화(二元化) 체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실제로 평양 소재의 대학 중에서 조선어문학 강좌와 연구, 교육을 수행할 만한 대학은 서너 군

데로 압축되는데, 예컨대 그 중 김철주사범대학교 등에서 외국인을 위한 조선어교육을 하는 증거는 확보되지 않은 반면 이 두 대학에서 교육·연수를 운영한다는 제보와 이에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는 여러 경로로 확인이 가능하여 잠정적으로 두 대학을 지목하여 대표 연수 기관이라고 일컫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을 듯하다.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짚어 두어야 할 주요 개념은 국외 유학생을 ‘실습생’과 ‘자비생’으로 분류하는 체계이다. 김인규(2012: 285)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실습생은 정부 선발 장학생으로서 학비와 생활비 일체를 지원받는 유학생을 뜻하고, 자비생은 학비를 직접 부담하여 대학에 재적(在籍)하고 있는 유학생을 의미한다. 또한 유학생들은 소속 상태에 따라 연구생(남한의 대학원생)과 본과생(학부생)으로도 나뉜다. 대학 내에 조선어교육을 별도로 전담하는 부설 기관(예컨대 한국어교육원, 한국어학당)이 설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타전공이든 혹은 위탁이든 이 두 대학 내에 학급을 편성하여 수업을 진행한다.

자비생으로 분류될 수 있는 인원 중에는 강남옥(2012: 314-315)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학연수를 받는 청강생 신분의 학생들도 있다. 이들은 중앙아시아, 중국, 이란 등의 외교관이나 상사(商社) 주재원 자녀들로 그 인원은 소수이며 대부분의 학생들은 ‘실습생’으로, 그리고 그것도 거의 대부분 중국 출신의 한국어과 전공 대학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은 북한의 조선어교육의 주요 대상이 ‘중국 정부 선발 출신의 대학 재학 어학연수생’이라는 특성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제시할 수 있는 주요어(keyword)로 중국의 ‘국가 유학 기금 위원회(国家留学基金管理委员会; Chinese Scholarship Council)’를 들 수 있다.⁵⁾ 이 위원회는 중국 교육 당국의 관할 아래 대학 사이의

5)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www.csc.edu.cn)를 참고할 수 있다.

국제 교류 업무를 조율하고 정부 초청·파견 유학생을 선발하는 공공 기관으로서, 이곳에서는 앞서 각주 3번에서 언급한 것처럼 ‘국제지역문제연구 및 고급 외국어 인력 양성 분야’ 내 ‘조선 교환 장학생 부문’으로 1년에 약 총 200여 명(김일성종합대 100명, 김형직사범대 100명 가량) 수준의 실습생을 지속적으로 파견하고 있다. 비교적 최근(2012년 3월) 중국 베이징에서 송고된 한 언론의 인터뷰 기사에 따르면⁶⁾ 이들은 거의 이들 연수생으로만 구성된 프로그램에서 7개월 간 조선어 연수를 받았고, 학비와 생활비를 중국과 북한 정부로부터 제공받았다고 한다. 인적 구성은 중국 내 10여개 대학 한국어전공자 출신으로, 북경대학교를 포함한 5개교 출신의 학생 100여 명은 김일성종합대학교로, 북경어연대학교를 포함한 5개교 출신의 학생 100여 명은 김형직사범대학교로 배치하였다.

총 7개월에 걸친 연수 기간은 다시 2개 학기로 나뉘는데, 4월부터 7월까지가 1학기, 8월부터 10월까지가 2학기로 각 학기 기간이 4개월 대 3개월로 다소 불균형하게 나누어져 있다. 이는 10년 전인 2002년에 연수를 다녀 온 학생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재구(再構) 연구를 한 강남옥(2012: 306)에 비추어 추론하건대, 초창기에는 매년 3월 시작 1월 종료로 총 연수 기간이 1년 정도(11개월)였다가 여러 가지 원인으로 9개월, 7개월 순으로 차츰 그 기간이 짧아지면서 지금의 형태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

거의 매일 진행이 되는 주요 교과는 ‘조선어 회화’와 ‘조선어 강독’이고 수업 시간은 각 90분으로 구성되었으며, 조선어 관련 수업은 조선어문학을 전공한 40~60대의 경력 교사들이 담당했다. 이외 주중에 1~3회 편성

6) 아시아기자협회 발간 “The AsiaN” 2012년 3월 9일자 기사(<http://kor.theasian.asia/archives/19166>, “북한 억양 남았지만 특별한 경험” — 평양서 한국어 배운 中 유학생 인터뷰 [박소혜 기자]) 참고 기사에서는 김형직사범대학교 실습 수료생과 한국 상명대학교 어학연수 경험자를 집단으로 인터뷰하고, 2011년 당시 연수의 여러 가지 정황과 함께 연수를 받으면서 인터뷰 대상자가 직접 촬영한 현지 사진, 지원받은 생활비와 학비 규모 등 구체적인 수치를 소상히 보도하여 흥미를 준다.

이 되는 교과로 문법, 글쓰기, 역사, 민속, 지리, 체육 등이 있었다.

한편 여기서 다시 부기(附記)할 것은, 김일성종합대학교와 김형직사범대학교의 연수 프로그램이 중국인 실습생 출신으로 대부분 구성된 것은 사실이지만, 러시아, 몽골, 중앙아시아, 중동 및 타 국적 외국인도 명확히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도 언급이 되고, 본고의 연구 사전 조사를 위해 이루어진 정보 수집 과정에서도 밝혀졌다. 즉 구성 비율이 그러한 까닭에 북한의 조선어교육은 중국인 학습자를 위주로 하고 있고 이에 본고를 포함한 관련 연구도 이러한 현실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만, 추후 다양한 권역의 학습자들이 어떻게 조선어교육에 참여했는지를 밝히는 것도 중요한 연구 과제가 될 것이라 전망한다.

2. 회화 수업의 운영과 급별 교재 구성

이제 본격적으로 본고가 연구 주제로 삼고 있는 ‘회화’ 교과의 운영과 교재 구성 체계에 대하여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두 학교에서는 회화 수업을 주요 교과로 다루어 거의 매일 수업을 진행하고, 각 기관에서 개발한 회화 교재를 사용하고 있다. 같은 성격의 연수라 하더라도 시행 기관의 교재 개발과 활용에 있어 어느 정도의 자율성과 교재 개발에 따른 소신과 철학, 기관 내부의 특성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런 한편 양 기관의 교육 목적이나 교육 기관, 대상 학습자의 배경과 특성은 거의 유사하므로 서로 그 체계를 비슷하게 맞추려는 통일성에 대한 배려도 동시에 나타난다. 즉 학습자들이 대부분 중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한국어과 학생들로 선행 학습이 어느 정도 있었던 사실을 고려하여 한글 자모 학습이나 기초 회화는 생략되어 있고, 3~4개월 단위의 2학기제인 교육 기간을 고려하여 2권 형태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그 체계는 단번에 확정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두고 보완을 거치며 다듬어 온

것으로 보인다.

두 대학교에서 사용된 회화 교재의 편성은 아래 <그림 1>과 같다. 여기에서 대상 학습자의 수준은 교재의 내용(회화 내용, 문법, 어휘 등)에 근거하여 연구자가 판정을 하였는데 굳이 이 표에서 ACTFL OPIc의 체계7)를 따른 것은 남한의 한국어교육 체계에서 급별 판정이 교재나 기관에 따라 그 기준이 일정치 않고, 국제통용 한국어교육 모형으로 설명하기에도 다소 일치하지 않는 지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비교적 가장 범용적으로 쓰이는 기준을 두고 그 수준을 비교·도출하였다.

<그림 1> 양 기관 회화 교재의 편성 및 수준(2011년 사용 교재 기준)

김일성종합대학	ACTFL OPIc 기준	김형직사범대학
조선말회화(1)	Novice MID Novice HIGH	조선어기초회화
	Intermediate LOW Intermediate MID	
	Intermediate HIGH	
조선말회화(3)	Advanced LOW	
		조선어회화(1) 조선어회화(2) (1·2판)

이상의 <표 1>의 내용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부기(附記)할 수 있다.

- (1) 김일성종합대학교 회화 교재에 관한 사항
 - ㄱ. 1학기 교재로 『조선말회화(1)』(박재호, 1999)을, 2학기 교재로 『조선말회화(3)』(최승주, 2009)을 사용하고 있다.
 - ㄴ. 이전에 발간된 것으로는 『조선말회화』(권승모, 1984)와 『조선말회화(2)』(안정균, 1992)가 있었다.⁸⁾ 이 교재들은 이른바 구판(舊版)으로

7) ACTFL의 OPI 기준에 대해서는 웹페이지(<http://www.opic.or.kr>)의 ‘평가 등급 체계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8) 이 두 교재는 한국학술진흥재단(현 한국연구재단) 기초 학문 지원 사업 ‘한국 근현대

『조선말회화(1)』, 『조선말회화(3)』과 함께 전면 개정이 되어 현재는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㉔. 수준상 『조선말회화(1)』은 OPIc의 ‘Novice MID(이미 암기한 단어나 문장으로 말하기를 할 수 있다)’ 단계에서 시작하여 ‘Intermediate MID(일상적인 소재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익숙한 상황에서는 문장을 나열하며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다)’ 단계를 모두 관장하여 수준의 향상이 다소 가파르게 구성되어 있다.
- ㉕. 『조선말회화(3)』은 희곡, 영화, TV 드라마 대본 등을 수록하여 구어체 실자료에 가까운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다. 어휘의 수준이나 문법적 난이도나 복잡도는 원어민과 크게 다르지 않다. 목차상 앞부분에 있는 소재가 일상적인 것이고, 후반부는 근대 역사물이나 ‘춘향전’ 등 전통 고전 작품을 시나리오로 바꾼 것으로 문화적 능력을 보다 요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2) 김형직사범대학교 회화 교재에 관한 사항

- ㉖. 1학기 교재로 『조선어기초회화』(장광길, 2005)와 『조선어회화(1)』(장광길, 2005)을, 2학기 교재로 『조선어회화(2) 2판』(리동관, 2007)을 사용하고 있다.
- ㉗. 이전에 발간된 것으로는 『조선어회화』(리갑재, 1999)가 있었다. 이 교재는 현재 사용되는 교재의 전신(前身)으로 초급 회화에서부터 영화 시나리오에 이르기까지 총 375페이지에 이르는 상당한 분량으로 전 내용을 담고 있으며, 1·2학기 교재로 연속하여 사용하였다.

민족어문교육 기초연구의 결과로 구축된 통합 데이터베이스(2006년)와 한국어세계화재단에서 발간한 ‘국내외 한국어 교재 백서(2009년)’에서도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목록 446, 447호). 그러나 연구를 수행하며 서적들의 소재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결과 『조선말회화(2)』는 망실(亡失) 상태로 보여 아쉬움을 준다. 입수하기 어려운 희귀 도서 관리에 대한 유관 종사자들의 각성을 요구하며,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주요 자료를 디지털한글박물관(<http://www.hangeulmuseum.org>)의 자료와 같이 전자 형태로 공개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여 두고자 한다.

- ㄷ. 김일성종합대학교 회화 교재가 새롭게 재개발된 것과는 달리 김형직사범대학교에서는 『조선어회화』(리갑재, 1999)를 저본(底本)으로 하여 2003년을 전후하여 시간을 두고 총 3권의 교재로 분책하여 내용을 증보하고 체계를 맞추어 보완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 ㄹ. 수준상 『조선어기초회화』는 원어민의 담화를 학습자를 위해 가공하거나 변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사용된 문장 수준이나 어휘 수준이 높고, 교재 초반부터 복문이나 통문장의 대화가 제시되어 OPIc의 'Novice HIGH(일상적인 대부분의 소재에 대해서 문장으로 말할 수 있다)'의 수준 정도로 판정된다. 이어진 『조선어회화(1)』은 머리말에 '이미 출판된 <조선어기초회화>의 연속으로'라는 언급이 붙어 있으며, 읽거나 들은 후 주제에 대해 회화를 유도하는 학습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수준상으로는 'Intermediate MID' 정도를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ㅁ. 『조선어회화(2)』는 1판(2003년 발간)과 2판(2007년 발간)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1판은 사용하지 않고 2판을 사용하고 있다. 두 판본을 비교해 보면 연극 희곡을 삭제하고 학습자들이 보다 시청각 자료로서 활용하기 좋은 영화 시나리오를 추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김일성종합대학교의 『조선말회화(3)』과 거의 비슷한 편제이며, 일부 제재는 동일하다.
- (3) 두 대학교 회화 교재의 대응점에 관한 사항
- ㄱ. 김일성종합대학교의 『조선말회화(1)』은 총 3편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 1편과 2편이 김형직사범대학교의 『조선어기초회화』에 교육 내용이나 수준에서 대응한다.
- ㄴ. 김일성종합대학교의 『조선말회화(1)』의 3편은 『조선어회화(1)』에 대응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내용과 구성은 매우 상이하다. 김일성종합대학교의 경우 영화에서 발췌한 장면으로 대화 지문을 제시하고 문법과 새 단어를 제시한 형태라면, 김형직사범대학교의 교재는 대부분 문어 자료를 바탕으로 긴 형태의 듣기 지문을 구성하고

있다. 이 듣기 지문을 바탕으로 듣기 후 말하기 활동, 즉 관련된 주제 토론이나 회화를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㉔. 김일성종합대학교의 『조선말회화(3)』은 김형직사범대학교의 『조선어회화(2)』에 거의 그대로 대응된다. 시청각 자료를 접하고, 대본을 독해한 다음, 해당 지문을 암기하여 실연(實演)하는 방식으로 회화의 유창성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 ㉕. 교재를 통해 나타난 두 조선어교육 기관의 회화 수업에 대한 교육적 접근이나 체계, 제시 방법은 여러 면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외국어교육에 있어 말하기 능력의 배양은 매우 근본적인 것이면서 핵심적인 것이다. 따라서 외국어교육의 현장에서는 저마다 다른 교재(기관)보다 더 능률적이고 보다 효과적인 말하기 능력의 성취를 제안하고자 노력한다. 그렇기에 다양한 교재가 개발되게 되고, 다각도의 분석과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국어교육에 있어 교재 개발이나 분석과 관련된 논의는 이러한 전제가 매우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으나, 북한의 대표적인 조선어교육 회화 교재에서 나타나는 교재 간 차이를 남북한 비교가 아닌 상호 비교로 해석을 시도해 보는 일은 일찍이 선례가 없어 의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도 흥미로운 작업이라 할 수 있겠다. 본고에서는 (3ㄱ), (3ㄴ)에 주목하여 상호 학습 위계가 대응하는 김일성종합대학교의 『조선말회화(1)』은 앞 2편과 김형직사범대학교의 『조선어기초회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도록 하겠다.

III. 분석 대상 교재의 비교 분석 및 평가

교재를 분석하고 그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준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외국어교재 이론에서는 교재를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다양

한 분석 영역과 점검 목록을 제안해 온 바 있다. 이론적으로는 엄밀히 ‘교재 분석’과 ‘교재 평가’를 구분하기도 한다. 즉 교재 분석이란 교재에 담겨 있는 다양한 객관적 정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수집하고 진술하는 것으로, 또 교재 평가란 교재 분석의 결과를 근거로 삼아 교재가 지닌 교육적 가치와 수준을 평가하고 의사 결정을 내리는 일련의 절차와 행위를 뜻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 두 과정은 분리된 것이 아니고 연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나누기는 어렵다는 점에 기대어 일반적으로 통합적으로 논의된다.

본고에서는 교재 분석론과 평가론을 연속적인 작업으로 보고, 1종의 교재라든지, 시리즈 교재가 아닌 비슷한 목적의 2종의 교재를 대조·비교하는 연구 특성상 아래 (4)와 같이 설정한 대주제하에서 양 기관에서 발간한 교재의 데이터를 기술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다.

(4) 교재 비교 분석과 평가의 주제

- ㄱ. 머리말에서 드러난 교재 제작의 목적과 방향
- ㄴ. 목차와 본문의 단원 전개에서 드러난 교수요목의 성격
- ㄷ. 각 단원에서 드러난 목표어 노출량과 예상되는 교수-학습 방법

본고에서는 이상의 사항들에 대해 교재 간 비교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교재에 사용된 어휘나 담화의 특징이라든지, 남북한 국어 표현 차이를 비롯한 이질적 특성과 같은 국어학의 연구 주제, 또 교재의 외형적 분석(지질, 편집, 삽화, 인쇄 상태 등)과 보고 등은 이 연구에서 논외로 할 것임을 미리 밝혀 둔다.

1. 교재 제작의 목적과 방향

비교 대상으로 삼은 두 개의 교재는 머리말을 통해 교재를 발간하게 된 배경과 목적, 활용 방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교재의 기본적인 틀과 목표로 하는 학습자, 교재 제작의 철학을 포함한 전반적인 교육적 방침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먼저 머리말을 중심으로 각 교재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김일성대학교의 『조선말회화(1)』의 머리말에 언급된 사항을 짚어 보자. 머리말의 일부를 발췌하여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말회화》(1)은 우리 나라에 오는 류학생들이 1년동안의 예비반단계에서 기초적인 조선말회화능력을 소유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교과서는 3개 편으로 구성되어있다.

제1 편에서는 초보적인 대화능력을 소유하도록 하기 위하여 650개 정도의 기초단어와 40개 정도의 기초토를 리용하여 문형에 따르는 24개의 본문을 주었다.

제2 편에서는 류학생들이 학습과 생활의 이리저리한 정황속에서 간단한 회화를 진행할수 있도록 1500개 정도의 단어를 활용하여 주제별로 28개의 본문을 주었다.⁹⁾ (박재호, 1999: 1)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김일성종합대학교에서는 밝혀진 문헌상 1980년대 초반부터 전후부터(권승모(1984), 『조선말회화』) 외국인을 대상으로 조선어 연수를 실시하는 주관 교육기관으로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리고 분

9) 이 부분의 표기법과 띄어쓰기는 원문에 변형 없이 인용하였으며, 밑줄은 연구자가 표시하였다. 이하 인용문에서도 동일하다.

석 대상 서적이 발간된 1999년 즈음에도 머리말로 미루어 보건대 연수 기간은 꾸준히 1년 정도로 유지되어 온 것으로 추정된다. 유학생은 기본적으로 전공 진학을 전제로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¹⁰⁾ ‘예비반’ 형태 즉 어학연수 기간을 1년으로 잡았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교재는 애초에는 약 1년에 걸쳐 기초 회화 능력을 배양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 기초 회화 능력을 배양하는 데 있어 교재 개발자들이 인지한 것은 회화 능력의 단계를 ‘최소한의 대화 능력’과 ‘상황에 따른 회화 구사 능력’을 구분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전자는 기초 어휘 650개 수준, 기초 문형(본문에서는 기초토) 40개 수준에서 가름이 된다는 자체 기준을 갖고 있으며 이를 1편으로 구현하였다. 그리고 이를 충족시키는 단계 위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의사소통의 문제 해결 능력을 다시 제시하여 1500개의 어휘 수준에서 2편으로 엮은 것이다.

이를 통해 기초 어휘의 선정 방법이라든지, 기본 문법의 배치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기는 하지만 이 교재가 기본적으로 외국어 학습자를 모국어 학습자와 다르게 접근하여 필수적인 것을 중심으로 교재를 제작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천명(闡明)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문형에 따른 기초 대화 본문과 정황에 따른 회화 본문은 머리말에서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아래 항목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다.

이어 비교 대상으로 삼은 김형직사범대학교의 『조선어기초회화』의 머리말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살펴보자.

회화는 가장 적극적인 언어행위이며 회화에서 그 사람의 외국어수준이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10) 위 인용문에는 없지만, 제3편을 설명하는 머리말 중에는 ‘본과에 진급하여 강의를 원만히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라는 언급이 실제로 붙어 있다.

이 책은 낮은 단계에서 조선어를 배우는 외국류학생들이 조선말회화를 잘 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책에서는 생활의 여러 가지 계기와 정황을 설정하고 그와 관련한 다양한 회화체본문을 주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이 참고할수 있도록 해당 계기와 정황에서 흔히 하는 말들을 자료적으로 주었다.

이 책에 있는 단어를 다 알고 문법지식을 충분히 파악하며 문장의 구성과 리해를 정확히, 속도있게 하기 위한 연습을 꾸준히 하면 회화능력을 빨리 높일수 있으리라고 본다. (장광길, 2005: 1)

이상의 머리말에서 미루어보건대, 이 교재는 단어나 문형의 통제보다는 외국인 학습자가 부딪히게 되는 상황에 유창하게 대응할 수 있는 외국어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김일성종합대학교의 교재와는 달리 사용 단어나 문형의 개수는 밝히지 않았으며, 대신 ‘흔히 하는 말’을 제공한다고 하여 상황에 따라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통 문장 단위로 반응할 수 있는 회화문을 암기하는 것이 유용함을 저변의 외국어교육 철학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외국어 학습에 대한 관념은 이후 여러 요소에서도 자주 목격되는데 이후 항목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다.

연구를 통해 밝힐 수 있는 매우 흥미로운 사실은, 김형직사범대학교의 외국어교육 방식과 접근에서 발견되는 전통적 위계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분석 대상으로 삼은 교재는 『조선어회화』(1999)를 저본으로 하여 『조선어기초회화』(2005), 『조선어회화(1)』(2005), 『조선어회화(2)』(2007) 등으로 개정·증보되는 과정을 통해 분책이 되었다. 각 목차를 상호 대조해 보면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도 있고, 첨가를 하거나 삭제한 부분도 보인다.

그런데 『조선어회화』(1999)의 머리말과 목차에서는 외국어 회화 학습

의 절차로 다음과 같은 위계를 설정하였다.

1 단계 정황에 따르는 회화 → 2 단계 직관에 기초한 회화
→ 3 단계 청취에 기초한 회화 → 4 단계 시청에 기초한 회화

이러한 위계화 원칙은 목차에 제시된 각 대단원명(편명)을 참조로 하여 다음의 머리말로부터 도출한 것이다.

책은 4편으로 구성되어있다.

제1편에서는 생활의 여러가지 계기와 정황을 설정하고 그와 관련된 회화체 본문과 함께 해당 계기와 정황에서 흔히 하는 말들을 자료적으로 주었다. 제2편에서는 자기눈으로 직접 본것에 대하여 회화를 할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하여 혁명 전적지와 사적지, 명승지, 대기념비적 건축물, 박물관 기타 여러가지 직관성있는 대상에 대한 개관자료를 주었다. 제3편의 혁명 전설, 혁명일화, 혁명설화와 기타 자료들은 록음이나 육성으로 들은 것을 기억하고 그 내용으로 회화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제4편에서는 텔레비죤으로 시청한 것을 회화로 되살리도록 하기위하여 영화문학들을 주었다. (리갑재, 1999: 1)

요컨대 김형직사범대학교의 외국어 교재는 기본적으로 즉시 활용 회화를 시작으로 시각 자료(직관)에 기반한 회화, 청각 자료(청취)에 기반한 회화, 시청각 자료(시청)에 기반한 회화로 그 수준을 높여가고 있다. 여기에서 사용된 직관(直觀)이란 흔히 쓰이는 사전적인 의미가 아니라 ‘직접 관찰한 것’이라는 의미로 시각적 경험을 바탕으로 말하기로 연계하는 차원을 뜻한다. 김일성종합대학교 회화 교재의 제작 관점이 문형이나 단어를 통제하면서 빈도와 난이도를 고려하고 있다면, 김형직사범대학교 회화 교재의 제작 관점은 ① 상황에 기초한 회화를 기본으로 하여 ② 본 것

을 표현하고, ③ 들은 것에 반응하며, ④ 시청한 것을 되살리는 회화를 축으로 삼아 언어 감각기(感覺器) 활용의 심화를 중심으로 위계를 설정한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이 기조는 이후 개정·증보가 될 때에도 그대로 이어져서 1999년의 교재 중 1편은 『조선어기초회화』로, 2편과 3편은 『조선어회화(1)』로, 4편은 『조선어회화(2)』로 반영되고 있다.

이 점에서 양 기관 회화 교재의 단원 본문이나 주제에서 외형적으로 유사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회화 교육에 대한 관점은 서로 다르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교수요목의 성격과 단원 구성의 특성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교재 구성은 어떤 교수요목으로 설계하는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강현화·이미혜, 2011: 304). 교수요목 설계를 통해 교육 내용 범주로 무엇을 선정할 것이며, 그것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교수요목 설계 방식에 따라 단원의 내용과 구성이 일차적으로 결정되고 외형적으로도 그 모습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이 절(節)에서는 두 교재의 목차와 본문을 바탕으로 채택하고 있는 교수요목과 단원 구성의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각 교재의 목차의 단원명과 개별 단원의 전개 방식을 주로 분석하고 평가한다.

먼저 김일성종합대학교의 『조선말회화(1)』의 1, 2편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문형에 따르는 회화와 상황에 따르는 회화의 두 개 편으로 이루어져 있다. 단원의 구성은 아래 <표 1>과 같고, 그 실례를 일부 보이면 이어진 <그림 2>와 같다.

〈표 1〉 『조선말회화(1)』의 목차와 단원명 구성

편명	단원	단원명		
제 1 편	제 1 과	동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제 2 과	어느것이 동무의 책입니까?		
	제 3 과	영수동무, 뭘 합니까?		
	제 4 과	동문 어디에서 생활합니까?		
	제 5 과	언제 조선에 왔습니까?		
	제 6 과	대동강은 어디로 흐릅니까?		
	제 7 과	오빠와 이야기합니다.		
	제 8 과	교실이 넓고 시원합니다.		
	제 9 과	누구에게 편지를 씁니까?		
	제 10 과	빵보다 국수를 좋아합니다.		
	제 11 과	오늘 날씨가 어떻습니까?		
	제 12 과	꽃들이 곱게 폈군요.		
	제 13 과	밤새도록 읽었습니다.		
	제 14 과	그는 자기를 철수라고 소개했습니다.		
	제 15 과	도서관에 가서 무슨 공부를 했습니다?		
	제 16 과	명수동무를 바래워주러 갑니다.		
	제 17 과	질은 좋은데 형식이 마음에 안듭니다.		
	제 18 과	가면서 이야기합니다.		
	제 19 과	힘들지만 끝까지 풀겠습니다.		
	제 20 과	그리고 가면 안됩니다.		
	제 21 과	어느 역에서 내려야 합니까?		
	제 22 과	여기서 기다려도 되겠습니까?		
	제 23 과	갔다가 인차 돌아서겠습니다.		
	제 24 과	모란봉에 오르니 참 좋군요.		
제 2 편	제 1 과	인사	제 2 과	소개
	제 3 과	사의, 사과	제 4 과	희망, 청원
	제 5 과	금지	제 6 과	축하, 축원
	제 7 과	나이	제 8 과	날자
	제 9 과	요일	제 10 과	시간
	제 11 과	계절	제 12 과	날씨
	제 13 과	텔레비죤시청	제 14 과	방문
	제 15 과	수업시간	제 16 과	직업
	제 17 과	가정	제 18 과	기숙사생활
	제 19 과	식당	제 20 과	상점

제 21 과	책방	제 22 과	양복점
제 23 과	우편국	제 24 과	병원
제 25 과	정거장과 비행장	제 26 과	운동과 경기
제 27 과	사진	제 28 과	거리에서

<그림 2> 『조선말회화(1)』의 목차 일부

제 1 편	
제 1 과. 동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4
제 2 과. 어느것이 동무의 책입니까?.....	5
제 3 과. 영수동무, 뭘 합니까?.....	6
제 4 과. 동문 어디에서 생활합니까?.....	7
제 5 과. 언제 조선에 왔습니까?.....	8
제 2 편	
제 1 과. 인사.....	32
제 2 과. 소개.....	33
제 3 과. 사의, 사과.....	36
제 4 과. 희망, 청원.....	39
제 5 과. 금지.....	42

단원명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이 교재의 교수요목은, 독특하게도 한 권에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고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체계를 달리하면서 구성하는 구조형(혹은 문법형, structural or grammatical) 중심의 혼합형 교수요목을 적용하고 있다.¹¹⁾ 1편에서는 현행 대다수의 남한의 한국어교육 교재와 비슷한 결과 중심의 교수요목으로서, 단원별로 배워야 할 문법이나 단어를 쪼개어 배분하여 제시하고, 단원명은 본문에서 대표적인 발화라고 할 수 있는 문장을 뽑아 선정한다. 단원의 전개 방식은 일괄적으로 [대

11) 교수요목의 유형과 분류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자들이 다양한 체계로 제시해온 바 있다. 본고에서는 학계에서 대체로 합의하는 분류 체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논의하며, 대강의 틀은 민현식(2002)을 따른다.

화문]-[단어]-[문법]으로 이루어져 있고, 연습이나 활동은 교사 역량과 교실 상황에 전적으로 맡겨 제시되어 있지 않다. 각 단원에 배정된 새 단어는 비교적 일정한 데 비해 문법은 상당히 불균형하여 1개에서 9개까지 편차가 심한데¹²⁾ 이러한 집필 경향은 원론적으로 회화 교재 자체에서 ‘문법 학습량’을 ‘직접적인 회화 학습량’으로 산입(算入)하지 않는 듯한 인상을 준다.

이에 비해 2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요한 상황과 주제를 중심으로 단원명을 정하고, 관련된 대화문을 여러 개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교수요목은 상황형(situational) 교수요목을 위주로 하고 주제형(topical), 개념형(notional) 교수요목이 보완적으로 첨가된 혼합형 교수요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 『조선말회화(1)』의 1편(상단)과 2편(하단) 단원 전개 예시

<p>제3과. 영수행두, 뭘 할니까?</p> <p>- 영수행두, 뭘 할니까? ○ 숙제를 할니다.</p> <p>- 김용부도 숙제를 할니까? ○ 아입니다. 저 흥분 소설책을 읽고있습니다.</p> <p>- 회보를 보는 흥분은 누구니까? ○ 내 흥분입니다.</p> <p>- 그도 역사학부 학생입니까? ○ 그는 우리 대학 학생이 아닙니다.</p> <p>- 육이는 뭘 할니까? ○ 그는 편지를 쓰고있습니다.</p>	<p>회화 권지 소셜책 소설 읽다 회보 報章 보다 우리</p> <p>피해 권지 쓰다 노래 부르다 통영 피아노</p>	<p>△ 문법 -을/을 (목적어; 직결격격) ○ 노래를 부릅니다. ○ 무엇을 할니까? -가/이 언니다 (부정) ○ 이것은 교실이 아닙니다. ○ 저 흥분은 학생이 아닙니다. -고있다 (지속) ○ 그는 책을 읽고있습니다. -는 (규정보; 한문) ○ 회보를 보는 흥분</p>
<p>제5과. 금 지 권지하다</p> <p>라디의 할 띠다</p> <p>1: 저의 할는 사지 마십시오. 2: 무슨 일이 있습니까? 1: 바쁜 일이 있어서 경치장에 가지 못할것 같습니다. 2: 그렇게 하겠습니다.</p> <p>1: 편지할 필요없 읽을것 같습니다. 2: 그건 읽을것없어 너에게서 그걸로? 그만하고 읽읍시다.</p> <p>1: 다음주에 동이까지 읽습니까? 2: 아, 그렇군요, 우리가 편지보다 먼저 갈수 있겠군요.</p> <p>1: 그 방에 들어갈수 없습니다. 2: 왜 그렇니까? 1: 지금 회의중입니다. 동이까지 읽읍시다.</p> <p>2: 난 그제서로 모르고 나에게 미안하게 됐습니다.</p>	<p>△ 단어 금지 禁止 볼때마다 만나서 신경 물시 大吵大鬧 예민하다. 敏感 문 볼 꺼다 떨다 조용하다 미처 읽다 읽는다 정우다</p> <p>담배 제대로 마음놓 놓다 소리 승인 일일하다 술만 먹주 마시다 충고 말다 기침 걸다 위험 명심하다</p>	<p>남에게주다 전날같이 총서 요구대로 일일이 일어나다 술만 짜다 술만을 놓이다 사람 통담 지나치다 상가하다</p> <p>△ 문법 -아서/어서/어서는 한피다 (금지) ○ 담배를 피워서는 안됩니다.</p>

12) 김인규(2012-7: 292-293) 참고. 해당 부분에서는 1편 수록 24개 단원의 제시 문법 사항을 도표로 정리하여 두었다.

상황별로는 수업, 식당, 상점, 우편국, 병원 등이 등장하고, 주제·개념별로는 나이, 날짜, 요일, 시간, 날씨 등이, 또 상황별 화행을 설정하여 소개, 사례, 사과, 청원, 금지 등이 나타난다. 교수요목별로 엄밀히 분류하자면 이들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학습자가 부딪히게 되는 다양한 계기와 정황(情況)’이라는 머리말의 조건 아래로 수용이 되는 표제들이라 할 수 있겠다. [대화문]-[단어]-[문법]이라는 전개 순서는 1편과 다르지 않지만 대화문의 내용이 훨씬 더 비중이 크고 다양하다.

위 <그림 3>은 1편과 2편의 단원 전개 방식의 예를 보인 것이다. 양자의 특징이나 채택하고 있는 교수요목 등 대부분의 내용을 이미 다루었지만, 대화문의 등장인물의 시각적 처리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아 추가적으로 언급할 필요가 있다. 1편과 2편의 대화문을 처리하는 데 있어 시각적으로 보이는 큰 차별점은 대화 당사자의 표식을 기호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1편에서는 본문의 대화 참여자를 —과 ○의 대립쌍으로 설정하고 응답자로 설정된 ○ 표식을 들어서 쓰는 방식을 취한 반면, 2편에서는 대화 참여자를 ‘1.’과 ‘2.’ 방식으로 바꾸고 들여쓰기를 없앴으며, 상황이 다른 대화문 사이의 줄 간격을 띄어 시각적인 구분을 주었다.

일견 사소한 차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아래에서 다룰 김형직사범대학교의 『조선어기초회화』와 연관되어 상당히 유의미하게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김영만(2001: 338-339)의 지적에서처럼 교재 한 면 한 면을 어떻게 채웠고, 어떠한 시각 정보를 주느냐에 따라라도 학습자는 다른 반응을 보이며 상이한 학습 경험을 겪게 되고, 백승주(2003: 1)가 문제 제기한 바와 같이 언어학습자가 접하는 교재의 텍스트는 순수하게 ‘언어’로만 구성되지 않기 때문이다. 같은 연구(2003: 84)의 취지에 따르면 기호를 통해 대화문을 제시하는 것은 관계적 도상성(relational iconography)을 높이고 학습자가 여러 인물로 상정하여 대입해 보면서 연상의 가능성을 열어 주는 유연성(有緣性, motivation)이 생긴다는 점에서 삽화가 없고 제한된 공간을 가지고 있다는 이 교재의 단점을 극복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

으로 평가할 수 있다.¹³⁾ 그리고 이것이 2편으로 가면서 제거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그 가운데 교재 제작자의 교육적 의도가 개입하였다면 교육적 효과에 대한 판단과 반영이 내재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또 다른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측면도 있다.

이어 김형직사범대학교의 『조선어기초회화』에 드러난 교수요목과 단원 전개의 특성을 살펴보자. 이 교재의 단원 구성은 아래 <표 2>로 정리할 수 있으며, 일부 실례를 보이면 <그림 4>와 같다.

<표 2> 『조선어기초회화』의 목차와 단원명 구성

단원	단원명	단원	단원명
제 1 과	인사	제 2 과	소개
제 3 과	사례	제 4 과	축하
제 5 과	사죄, 위로, 고무	제 6 과	청원, 요구
제 7 과	가족, 친척, 나이	제 8 과	성품
제 9 과	시일	제 10 과	기후, 날씨
제 11 과	농사	제 12 과	식사, 작식
제 13 과	옷지어입기	제 14 과	설비, 비품, 꾸리기
제 15 과	상품사기	제 16 과	사진촬영
제 17 과	편지, 전보, 전화	제 18 과	컴퓨터리용
제 19 과	교통수단리용	제 20 과	독서, 감상, 연구
제 21 과	체육경기관람	제 22 과	위생문화
제 23 과	건강관리, 병		

13) 김인규(2012): 290-291)에서는 도형을 통한 이항 대립(二項對立; binary oppositions)이나 1, 2 등 숫자로 대화 참여자를 설정한 형태 모두를 대화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불리하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즉 교재의 엔트로피(entropy)가 증가하는 것은 가치 판단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그 평가가 긍정적인 수도 있고, 부정적인 수도 있다는 점을 짚어두고자 한다.

〈그림 4〉 『조선어기초회화』의 목차 일부

차 례	
머리말.....	2
✓1. 인사.....	3
✓2. 소개.....	8
✓3. 사 때.....	13
✓4. 축하.....	18
✓5. 사죄, 위로, 교무.....	21
✓6. 청원, 요구.....	26

단원명으로 추론할 수 있는 바로는 김일성종합대학교 『조선말회화(1)』의 2편과 유사하다. 상황과 주제, 개념을 중심으로 하여 학습자들이 마주칠 수 있는 만한 주제를 뽑아 단원명을 제시하였다. 앞서 분석한 교재와 비교해 볼 때 ‘소개’, ‘축하’, ‘날씨’, ‘상품사기’ 등 제목과 소재가 유사한 것이 상당 수 있으며, 교수요목 역시 상황형 교수요목을 위주로 한 주제형, 개념형 교수요목의 혼합형 교수요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문의 구성과 전개는 『조선말회화(1)』과 상당히 다르게 이루어져 있다. 그 중 가장 가시적으로 큰 변별점을 보이는 것은 교재에 수록된 대화문의 실제성(authenticity)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아래 <그림 5>에서도 제시한 것과 같이 『조선어기초회화』의 본문은 실제 주어진 상황에서 원어민 화자들이 발화할 만한 실제 상황을 가정하여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문장의 길이라든지, 문법적 난이도나 복잡도, 단어에 대한 통제는 크게 고려하지 않으며, 개별 단원의 전개에 있어서도 새 단어나 문법을 제시하지 않고, 해당 담화 상황에서 지주 쓰일 만한 문장을 묶어 ‘흔히 쓰는 말’이라는 영역을 설정하고 있다. 단원의 전개는 극히 단순하게 되어 있어 [대화문]-[흔히 하는 말]로 이루어지되, 대화문은 장소, 조건, 대화 참여자가 다른 것을 기준으로 5~6개 담화를 포함하는 ‘(1)-(2) ...’ 형태로 다시 나뉜다.

<그림 5> 『조선어기초회화』의 단원 전개 예시(상단: 2과, 중·하단: 12과)

<p style="text-align: center;">2. 소개</p> <p style="text-align: center;">(1)</p> <p>△ 동무들에게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선생님이 동무들에게 조선말을 가르치게 됩니다. 선생님의 지도를 적극적으로 받으면서 조선말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겠습니다.</p> <p>○ 알았습니다.</p> <p>△ 이 학생은 동무들과 기숙사생활을 같이할 윤성범 동무입니다. - 이 학생은 동무들과 한 기숙사에서 생활하게 될 윤성범 동무입니다.</p> <p>- 이 동무는 <u>언론학부</u> 학생인데 윤성범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동생으로서 <u>동무들과</u> 잘 같이 지내게 됩니다.</p> <p>○ 알겠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읽어 하는 말</p> <p>- 저 동무는 데사판 올원수입니다. - 저분은 의무실에서 나온 일꾼입니다. - 저기 문앞에 서계시는분이 누구십니까? - 방금 저에서 덕된 사람이 누구니까? - 저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어디서 일하는 사람입니까? - 교학생 교학동지가 여기에 계신다는데 어느분인지 모르겠습니까? - 방문일에 서계시는분은 교수, 박사 명칭이 선생님이십니까. - 저기 앉아계시는분은 학생선생님이십니까.</p>
<p style="text-align: center;">12. 식사, 작식</p> <p style="text-align: center;">(1)</p> <p>△ <u>뭐 드셨습니까?</u> <small>뭐 드셨습니까?</small> ○ <u>저는 식사한 것 없었습니다.</u> △ 그럼 국수를 달라고 할까요? ○ 그렇게 합시다. △ 잘래왔습니까, 여기 좀 봅시다. ○ 안녕하십니까? 뭐 드시겠습니까? △ 국수를 먹으려고 합니다. ○ 몇그릇 달입니까? △ 두그릇만 주십시오. ○ 열원을 요구하십니까, 온원을 요구하십니까? △ 열원을 주십시오, 그런데 안그릇엔 요구가주름 지게 달아주십시오.</p>	<p>○ 식료를 좀 주십시오. △ 난 이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대선 배운것을 좋아합니다. <small>이것이</small> ○ 그러면 이 [저자]를 좀 주십시오. <u>윤강소형계주</u> 나하곤 잘 만리구 만요. <small>저자</small> △ 있었습니까? 어느 나라의 속담일 맛과 색깔은 [맛] 없애고 늘리는 사합마작 식성이 같지 않으니까요. <small>이것</small> ○ 읍습니다. 그래서 그리는지는 모르겠지만 난 저자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 저자가 읽기는 하지만 교수와는 달리 독특한 명색을 추구지요. <small>이것</small> ○ 난 그게 [일식]입니다. 오쿠하원 우리 말에 [출판] 저작역기[는] 말이 있었습니까? <small>이것이</small> <small>출판역기</small> <small>출판역기</small> <small>출판역기</small></p>
<p style="text-align: center;">읽어 하는 말</p> <p>- 식사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 식사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small>이것이</small> - 때가 <u>출출합니다</u>. - 때가 <u>흐릅니다</u>. - 때가 <u>흐름을 보</u> 식사시간이 되어오는것 같습니다. - 식사하려 갑시다. - 밥먹으려 갑시다.</p>	<p>- 너무 갑습니다. 좀 <u>읽어</u> 주십시오. - 빈 그릇을 하나 주십시오. 좀 읽어야 하겠습니까. - 밥을 갑습니다. - 국수를 누릅니다. - 먹을 겁니다. - 만무를 갑습니다. - 죽을 갑니다. - 김치를 갑습니다. - 교구마를 갑니다. <small>이것이</small> - 고기를 갑습니다. <small>이것이</small> <small>이것이</small> - 남식을 갑습니다. - 죽을 갑습니다.</p>

이상의 <그림 5>에서 보듯이 학습 시간이 얼마 되지 않은 상태인 2과에서도 제시되는 문장의 문법과 어휘의 수준은 거의 원어민의 일상 대화를 손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시되고 있다. 이후 12과에 이르게 되면 식당이라는 상황에서 특정 의사소통 행위(예컨대 주문하기 등)를 수행하게끔 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식당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담화를 거의 대본의 형태처럼 가져와 교재에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이 교재는 문법을 활용해서 문장을 생성하는 측면보다 문장을 통째로 암

기하여 유창하고 자연스럽게 발화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있는 점이 곳곳에 보인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대화문의 발화자는 ○와 △로 대립시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조선말회화(1)』의 1편과 유사하면서도 차이가 있다. 특히 이 교재에서는 ○△의 이항 대립 이외 — 표시를 도입해서 ‘대체 가능한 동일한 뜻의 다른 표현’을 지정하고 있다. 대체 표현을 상황에 맞게 다양하게 제시하는 교재 구성 또한 김형직사범대학교의 『조선어기초회화』 교재가 가진 ‘통 문장 위주’의 교육적 개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교재별 목표어 학습량과 교수 학습 접근 방법

앞의 두 항목을 통해 두 기관에서 사용하는 초급 회화 교재의 개발 목적과 방향, 전반적인 구성과 전개 방식을 살펴보았다. 여러 가지 두드러진 비교·대조점을 찾을 수 있었지만, 그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김일성종합대학교의 『조선말회화(1)』가 단어, 문법의 통제를 통해 학습자의 문장 생성력을 단계적으로 정확성(accuracy)을 기하여 배양하려는 집필 의도를 가지고 있는 데 반해, 김형직사범대학교의 『조선어기초회화』는 원어민의 사용 실제성이 높은 문장 위주의 학습을 통해 상황별로 유형화된 패턴 드릴(pattern drill) 형태의 대화문을 제공하고 이를 반복·암기하여 체득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학습자의 유창성(fluency)을 제고하려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이다.¹⁴⁾

14) 보충하자면, 두 학교가 외국어교육(즉 조선어교육)에 대해 취하는 이러한 기조는 각 기관에서 발간한 문법 교재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김일성종합대학교에서는 박재호·양옥주(2009)의 공저로 『조선어문법 [류학생용]』이, 김형직사범대학교에서는 김영일(2006)의 집필로 『조선어실천문법』이 발간되었는데, 전자의 책에서는 형태론, 단어형성론, 품사론, 문장론 등 국어학에서 다루는 제 분야를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설명하려고 하는 한편, 후자의 책에서는 매우 과감하게 ‘토의 의미기능적 특

이러한 특성은 자연스럽게 이 교재들의 교수-학습적 활용, 구체적으로 교수법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다. 앞서 분석해 낸 교재의 형태로 예상해보자면 『조선말회화(1)』은 제시된 문법 중심으로 한 활동과 연습을 강조하는 교수법에, 『조선어기초회화』는 청해와 암기, 반복과 응용을 통한 재현을 중심으로 한 교수법에 보다 적합하게 맞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조선말회화(1)』 교재도 2편 중후반부에 도달하면 『조선어기초회화』와 전반적인 형태가 비슷해지고, 이후 상급 교재들은 형식적 유사도가 더 높아져 전반적으로 양 기관의 교재 형태가 차츰 수렴하는 양상을 띠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두 기관의 교재가 초급 영역을 중심으로 보여주는 교육적 관점이나 접근은 분명히 여러 가지 면에서 변별되는 점이 있다.

여기서 한 가지 고려해 볼 만한 교수-학습을 관찰을 위한 주요한 변별점으로 각 단원별 정보량, 즉 학습자에게 노출되는 목표어의 학습량을 들 수 있다. 정영국 외(2003: 268-270)에서도 지적한 것과 같이 외국어 교재에 있어 단원별 학습량과 일관성, 적절성은 교재의 사정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 두 교재를 비교해 본 결과, 학습자에게 입력되는(혹은 제공되는) 단원별 학습량의 차이는 상당히 크게 나타난다. 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5) 분석 대상 두 교재의 학습량에 관련된 사항

- ㄱ. 가장 첫 과 두 과를 상호 비교해 보면, 『조선말회화(1)』 1편, ‘제1과 동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의 학습량이 총 44행(1페이지 반 정도)인 데 비해 『조선어기초회화』의 ‘제1과 인사’의 학습량은 158행(5페

성을 중심으로 한 문장론을 위주로 하여(머리말 인용) 실용적 측면에서 문장의 구조와 기본 문장의 형식부터 먼저 제시하는 체제를 갖고 있다. 전자가 분과 학문으로서 언어학의 체계에 충실하다면 후자는 응용언어학적인 견지를 다분히 지니고 있다.

이지 반 정도)에 이르고 있어 첫 단원의 정보량 차이가 3.6배가량 차이가 난다.

- 나. 주제별로 대조하기 위해 『조선말회화(1)』 2편, ‘제1과 인사’와 『조선어기초회화』의 ‘1. 인사’를 비교하여도 59행 대(對) 158행으로 김형직사범대학교의 『조선어기초회화』의 학습량이 약 2.7배 더 많다.
- 다. 『조선말회화(1)』의 학습량은 단어와 문법을 모두 포함한 것이지만 『조선어기초회화』의 학습량은 이를 제외한 것이므로 두 교재 사이의 노출 및 입력 정보량의 격차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 르. 『조선어기초회화』의 한 단원은 첫 단원부터 마지막 단원까지 평균적으로 5~6페이지 정도의 분량으로, 가장 마지막 단원(제23과 건강관리, 병)의 학습량은 188행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비해 『조선말회화(1)』은 첫 단원과 마지막 단원의 학습량 차이가 현저하게 늘어나는 특징이 있는데, 2편 마지막 단원(제28과 거리에서)의 학습량은 132행(3페이지 반 정도)이다. 이는 같은 책 첫 단원의 학습량으로부터 3배가 증가한 수준이다.

여기에 더하여 제작된 교재를 실제로 교수-학습하는 교실 상황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면 교재의 성격을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도움이 되겠지만, 북한의 사회 특성상 교육의 면면을 쉽게 관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직접 교육 과정에 참여한 학습자들의 제보를 통해 재구성하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가장 타당한 방법으로 보이며, 본고에서는 추후의 과제로서 미루어 두어야 할 듯하다.

다만 일부 선행 연구들로부터 양 대학의 한국어 회화 수업의 교수-학습 방식이나 수업 운영에 대한 언급을 단편적으로나마 발견할 수 있어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다(김인규, 2012-: 288; 강남옥, 2011: 312-313). 이 연구에서 본고가 비교 대상으로 삼은 교재에 대한 상세한 언급은 찾기 어렵

다. 그렇지만 확인된 바로는 공통적으로는 직전 수업(전날 수업 내용)에 대한 회화문의 전체적인 암기를 강조하고 있으며, 김일성종합대학교에서는 교사 주도의 발음 교정과 해설을, 김형직사범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지목하여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교사-학생 간 대화문 응용 연습에 비중을 두어 진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앞서 교재 비교를 통해 드러난 내용들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IV. 결론

지금까지 북한의 조선어교육 교재로서 김일성종합대학교 발행 『조선 말회화(1)』과 김형직사범대학교 발행 『조선어기초회화』 두 권을 선정하여 제작 목적, 교수요목, 단원 구성과 전개, 학습량과 교수-학습적 접근 등을 분석해 보고 비교·대조하며 그 의미를 평가해 보았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두 교재가 가진 목적은 거의 동일하나 집필자가 가진 외국어교육에 대한 관점에서 차이를 보이며, 이것이 교수요목이나 본문의 구성에 반영되어 나타나 있음을 논증하여 보았다.

북한이라는 체제에 대한 외부의 고정된 선입견 중에 하나가 사회의 모든 체제가 획일적이고 전체적일 것이라는 판단이다. 그러나 북한 사회 전반에서 이념성이 과장되고 강조될지라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거나 정책적 판단을 내릴 때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이를 결집하고 가려 산출물을 내어 놓는 절차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유사한 연수 프로그램이었지만, 김일성종합대학교 교재에서는 교수요목의 틀을 다양하게 적용하여 문법과 단어를 통제하고 외국인 학습자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체계성을 강조한 반면, 김형직사범대학교 교재에서는 원어민의 사용 양상을 최대한 반영하고 이를

반복 연습하면서 유창성을 확보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또한 감각기의 활용을 확장시킴으로써 회화의 수준이 상승할 것이라는 관념 아래,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교재를 개정하고 보완하는 개작(改作) 작업을 진행해 온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어교육에 있어 교재론은 교육의 실천 자료에 대한 이론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한국어교육의 교재론은 외국어교육, 특히 영어교육에서의 교재론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어 그 고유성을 구성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 중에서 특히 결여된 부분이 한국어가 외국어로서 사용된 이후 다양하게 시도된 역사적 기록을 수집하여 교재사나 교재활용사를 만들어나가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짚을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외국인에 의해 다양한 한국어 교재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교육적 측면에서 바라보고 해석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이후 한국이 분단의 시기를 부득이 겪게 되면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은 남한과 북한의 양측에서 동시에 진행되었다. 북한의 외국어로서의 조선어교육은 그 활동이 거의 없는 듯 보이지만, 지속적으로 성장·유지되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비교 내용이 폭넓게 확보되지 못했고, 교수-학습 상황을 드러낼 만한 구체적인 제보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몇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향후 이루어질 후속 연구의 바탕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여겨진다. 본고에서 다룬 교재 이외의 다양한 교재를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를 기약하면서, 한편으로 수집한 자료들이 장기적으로는 사본이 아닌 원본으로 수집·전산화되어 연구 자료로 공용화할 수 있게 되고 다양한 유관 연구를 파생시키면서 한국어교육 정책 수립 등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이 논문은 2012. 10. 31. 투고되었으며, 2012. 11. 21. 심사가 시작되어 2012. 12. 6. 심사가 완료되었고, 2012. 12. 10. 편집위원회 심의를 거쳐 게재가 확정되었음.

참고문헌

1. 자료 (기관별-자료 유형순 정렬)

- 권승모(1984), 『조선말회화 [류학생용]』,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박재호(1999), 『조선말회화 (1) [류학생용]』,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안정균(1992), 『조선말회화 (2) [류학생용]』,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최승주(2009), 『조선말회화 (3) [류학생용]』,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박재호·양옥주(2009), 『조선어문법 [류학생용]』,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리갑재(1999), 『조선어회화』, 김형직사범대학출판사.
 장광길(2005), 『조선어기초회화』, 김형직사범대학출판사.
 장광길(2005), 『조선어회화 (1)』, 김형직사범대학출판사.
 리동관(2003), 『조선어회화 (2) 1판』, 김형직사범대학출판사.
 리동관(2007), 『조선어회화 (2) 2판』, 김형직사범대학출판사.
 김영일(2006), 『조선어실천문법』, 김형직사범대학출판사.

2. 논저

- 강남옥(2011), 「북한의 외국어로서의 조선어교육 운영 사례에 대한 면담 조사 연구 - 김형직사범대학 연수생 출신의 제보자 면담을 중심으로 -」, 『국어교육학연구』 40, 국어교육학회, pp.295-326.
 강현화·이미혜(2011), 『한국어교육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金重燮(2000), 「南北韓 한국어 敎育 比較研究」, 『語文研究』 28-2, 韓國語文敎育研究會, pp.77-99.
 김영만(2001), 「고급 수준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단원 구성 방안」, 『한국어 교육』 12-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323-353.
 김인규(2011), 「조선의 “외국어로서 조선어교육” 연구 - 류학생 교재를 중심으로 -」, 『국제한국어교육학회(IAKLE) 21차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275-287.
 김인규(2012ㄱ), 「조선의 “외국어로서 조선어교육” 연구 - 류학생 회화 교재를 중심으로 -」, 『한국어 교육』 23-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283-306.

- 김인규(2012), 『한국어 교재에서의 언어문화 요소 연구 - 조선어강독 교재를 중심으로』,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INK) 제14회 학술대회 자료집』,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pp.167-173.
- 김중섭·조현용(1996), 『북한의 언어정책과 한국어교육 연구』, 『이중언어학』 13, 이중언어학회, pp.115-136.
- 김중섭·조현용(1998), 『북한의 한국어교육 연구』, 『한국어 교육』 9-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113-133.
- 민현식(2002), 『언어교육과정의 구성요소와 교수요목(syllabus)의 유형』, 『21세기 한국어교육의 현황과 과제』, 한국문화사.
- 백승주(2003), 『언어학습 교재의 시각디자인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 - 한국어 교재 ‘말이 트이는 한국어’와 독일어 교재 ‘Themen’의 분석을 중심으로 -』,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판식(2005), 『북한의 한국어교육 회화교재 분석 연구 - 『조선어회화』, 『조선어회화2』를 중심으로 -』, 『한국어 교육』 16-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195-217.
- 李官植(2007), 『北韓의 韓國語 文化(民俗)教育 教材 분석』, 『語文研究』 35-3, 韓國語文教育研究會, pp.421-447.
- 정영국 외(2003), 『영어교재론 연구』, 한국문화사.

3. 인터넷 자료

국가지식포털 북한지역정보넷: <http://www.cybernk.net>

디지털한글박물관: <http://www.hangeulmuseum.org>

통계청 북한 통계 서비스: <http://kosis.kr/bukhan>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http://unibook.unikorea.go.kr>

통일연구원: <http://www.kinu.or.kr>

ACTFL OPIc(Oral Proficiency Interview - Computer): <http://www.opic.or.kr>

■ 국문초록

북한의 외국어로서의 조선어 교재 비교 연구

- 김일성종합대학교와 김형직사범대학교의 초급 회화 교재를 중심으로 -

강남옥

본 연구에서는 현재 북한의 주요 2개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외국인에 대상으로 한 조선어교육을 위해 제작된 초급 수준의 교재를 상호 비교하여 각 교재의 특성을 분석하고 교재론적으로 유효한 시사점을 고찰해 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외국인의 대표 조선어 연수 기관으로서 김일성종합대학교와 김형직사범대학교가 거론이 되는 이유에 대해 그 배경을 설명하고, 이 두 기관에서 발행한 조선어 회화 교재의 출판 현황에 대해서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어 본격적으로 두 기관의 초급 회화 교재를 비교,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두 교재의 발행 목적은 근본적으로 같지만 교육을 위한 접근 방법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교수요목에 있어서는 명징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일성종합대학교의 회화 교재는 초급 단계에서 외국어 학습자를 고려하여 문법 항목과 단어를 통제하는 방식을 기획하고 있는 반면 김형직사범대학교의 회화 교재는 실제성이 높은 문장 중심의 대화문을 통해 상당한 양의 목표어 노출을 제공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었다. 향후 더 세밀하고 다양한 기준으로 두 교재를 면밀히 살펴보는 한편 이외 교재에 대한 분석과 참여 학습자의 제보를 종합하여 북한의 조선어 교재의 면면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주제어] 북한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조선어)교육, 북한의 초급 회화 교육 교재, 북한의 어학연수 과정, 김일성종합대학, 김형직사범대학

■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the North Korean
KFL Textbook for Beginners**

— Comparing Kim Il-sung University Press Edition(1999)
with Kim Hyŏng-jik Pedagogical University Press Edition(2005) —

Kang, Nam-woo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evaluate representative North Korean KFL(Korean as a Foreign Language) textbooks for beginners. To achieve this, not only research of the present state in North Korean KFL education was carried out throughout leading study, but also comparative analysis and evaluation of selected two textbooks were operated. In the first plac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ason why the two universities — Kim Il-sung University and Kim Hyŏng-jik Pedagogical University — became official and representative institution of North Korean KFL training program. Subsequently, this study tried to compare Kim Il-sung University's textbook with Kim Hyŏng-jik pedagogical University's, and find out some significant facts such as while the one suggested structured and grammatical syllabus the other adopted situational-topic syllabus based on pattern drills.

[Key words] North Korean KFL(Korean as a Foreign Language) education,
North Korean KFL Speaking textbook for beginners, North
Korean language training program, Kim Il-sung University,
Kim Hyŏng-jik Pedagogical University